

학급문집

우리들의 이야기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1반

차례

4학년 1반의 작품집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1반

안녕 • 견효주
메달 • 김민주
게임 • 김민지
물방울 • 김시아
가방 • 김윤희
신사임당 • 김의빈
칭찬의 힘 • 김제우
진심이 담긴 낙엽 • 김하린
쓰레기 • 남도울
무지개 • 박지호
초능력 • 박한솔
매운맛 • 박현희
딱 한번만 • 백주아
매운맛 • 서예준
밤 하늘 • 서윤
학원간 날 • 송건우
고양이 • 송하경
책 • 오서준
가방 • 오현아
바다 • 이가람
군것질 • 이찬
심심한 날 • 이태운
공습 경보!!! 하기 싫어 • 전훈

달팽이 • 정혜교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 주민아

혼자 • 최단우

마스크 • 최지용

물방울 • 서연우

안녕

인천 용현초 4학년 1반 1번 전효주

안녕은 참 어려운 말
만날 때는 쉬운데
헤어질 때는 참 어려운 말



안녕이라는 두글 자조차
말 못할 어려운 말



안녕은 발도 못 떼게 하는
참 무서운 말

안녕은 나쁜 요정
변덕쟁이 요정



매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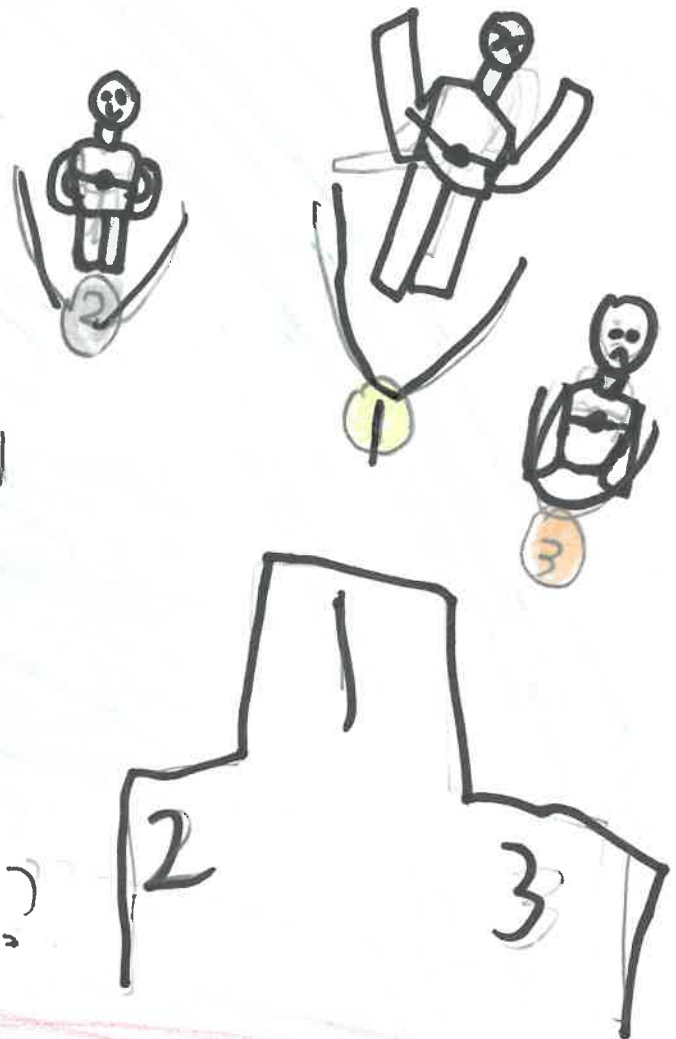
용현초 4-1 2번 김민주

준비 시작!

오늘을 위하여
엄청 연습하였다.

열심히 연습하고
하라는대로 연습도 했는데
설마 금매달?

못 따기나 하겠어?
꼭 준비 연습한 결과니까?



이런 줄이야. . . 제일 싫은
동매달을 따버렸다
이렇게면 연습 안했지. 흥!
저런 매달 안받고 말지!
하지만 시선이 매달을 향한다.



게임

인천 용현초 4-13반 김민지



나는 게임이 좋다. 언제 어디서든
지 계속 게임 생각 뿐이다. 그중
에서 특히 엄마 몰래 하는 게
임이 가장 좋다. 몰래 하면 두근
두근 떨리는 그 느낌으로 하는
게임! 가장 스릴 넘치고 재미있
다. 마치 1시간이 분 같을까?
음~ 망을 보며 열심히 게임하는
나. "어? 발소리가 들리네! 이럴
뻔 핸드폰을 꺼야하!" 그러고
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나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다
나는 들켜고 만다. "앗! 엄마께
송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라
고 했지만 나는 게임을 계속 할
거다. "그깟 게임 하나 했다고 뭐
라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
지고 하루종일 게임을 한다. 아
이러다 안경을 써야 할수 있는
데 괜찮을까? 그래도 나는
게임을 계속 할 거다. 내 미래
도 내가 책임 질거니까 나는
역시나도 게임중독자 인것 같다
매일 게임을 반복하는 나.



물 방울

인천용현 초등학교
4학년 1반 4번 김시아

학원이 끝나서 나가는데

머리위에 툭!!

방갑지 않은 물 방울이 떨어졌다.

‘제발 소나기여라!!’

하지만... 뭇분이 지나도

물방울은 오히려 더욱더 거세졌다.

‘아휴 우산이 없다.’

어쩔수 없이 집으로 뛰어갔다.

집에 도착해서 내모습을 보니

물에 있다 나뭇

사람처럼 다 젖어 있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해가 쨍쨍 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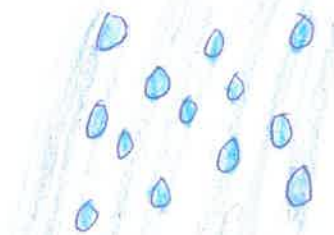
비는 너무 많았다!

비와 나는 사이가

안 좋아 보이다.

내가 집에 올때

집에 온후



제목: 가방
A-1반 5번이름: 김은호

난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기 전에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넣으려고 했다. 생각해야 하는 건 비문이 너무 많아서
그 준비물들을 다 넣으면 가방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남은 준비물들은 다음에 담아서 학교에 갔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가방에도 넣지 못하고 두 손에도 꼭 차 넘쳐서
걸국을 다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다.
오늘 하루면 나는 끝까지 노력해서 버텨볼 것이다.



제목: 학교

오늘도 힘든 게 있거나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밖을 나와 학교에
도착했다. 교실에 들어오면 보이는 칠판과 책상과 의자들
오늘 하루도 기다려준다!!!



신사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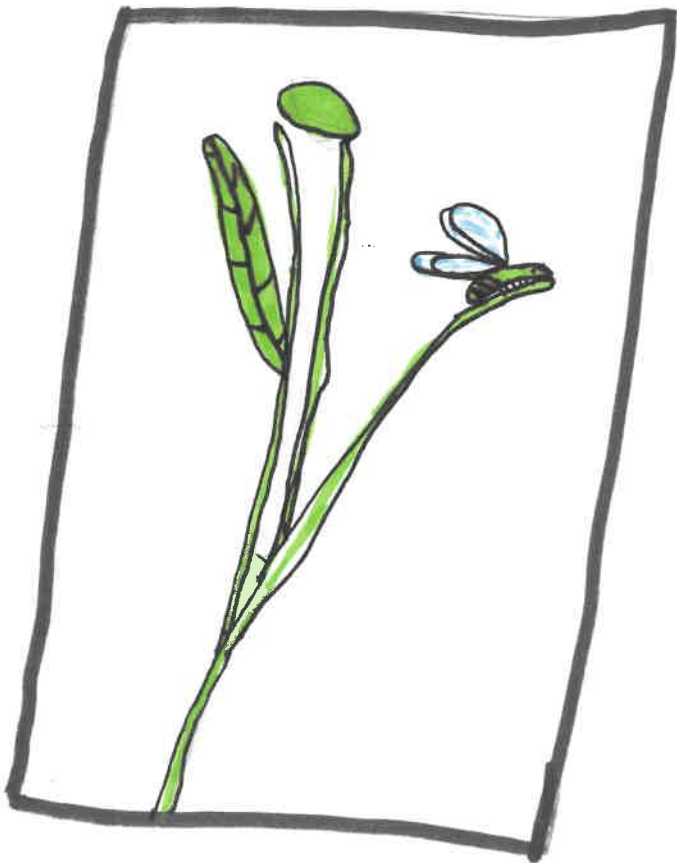
신사임당 책을 읽으면서 (인천 용현초 4학년 1반 6번 김의빈)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사임당이 6살 때 늦은 밤에 어머니를 위해 뒷산에 가서 약수를 떠왔는데, 정말 효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임당이 그린 풀벌레를 닭이 보고 조을 정도로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창의력이 아주 풍부하고 관찰력이 뛰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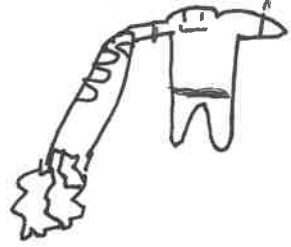
저도 신사임당처럼 효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칭찬의 힘 용연초등학교 4-1 김지우

나는 오늘 친구와 착한 일을 하였다
할머니에게 짐을 들어 도와 주고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농부를 배웠고
많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다
말안마치기에

고려도 참준다
같은 말은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잘하는 것
칭찬 받으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한다



조심이 담긴 낙엽

용현 초등학교 4학년 1반
8번 김하린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 나는 너무나도
속상했다 학원을 갈때 어떤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졌다 그낙엽은 하트 모양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너무 화풀이를 한것만
같았다. 나는 다음날 학교에 빨리
가서 어제 싸웠던 친구에게
정식으로 사귀었다 어제 받은
마이썸도 같이 주면서 사과글했다
그진심을 잘담아 친구에게 잘전
해진거 같았다 진짜 잘 담
았는지 친구도 곧장 사과를 했
다 그친구와 더더욱 친해졌
다 그하트 낙엽은 오히려 잘
풀리는 그런 낙엽인것 같았다
진심으로 말하고 배려하면서
마음을 담아주는 그런 낙엽
인거 같았다 그 낙엽이
야기를 친구들에게 가끔
말하곤 한다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쓰레기는
가치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
리가 무엇을 하든 쓰레
기를 얼른 버리고 화
전히 잊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기도
해요 누군가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 가
치 있는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쓰레기는 심
직이 박물관에
전시 되기도 해요

4-1 반 9번
남민



무지개

4-1 10번 쪽지

가끔씩 해와 비가 같이 올때도 무지개가 뜬다
 그럴때 보면 예뻐한다 근데 하늘은 항상 생각
 을한다 무지개는 내 나타날까? 내 예뻐할까?
 생각을한다 나는 신이 선물로 준것일것같다.



조는 령

인 천 명 초 나-1 반 키 밑 밤

나를 조는 령 자다 나 조는 령
영역 이다 영역 은 수 랑 은 구
조는 령 자다 나 데 조는 령
영역 이다 영을 해서 문은 하나
조는 령 은 조가 세 산 다



매운 맛

인천 용현 초등학교
4학년 1반 12번 박현희

세상에
매운 맛이 참 많다

매운걸
못 먹는 사람은
김치도 잘 못먹지만

잘 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치만 내가 말을 안들어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

그 무엇보다도
더 많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겠다



맛 있다



원하는 거야!



딱 한번만

인천용현 초등학교 4-1 13번 백주아♡

나는 매일 매일 말한다.

엄마아 딱한번만 해주면 안돼?

딱 한번만 사주면 안돼요?

딱 한번만요. 제발

나는 매일 조르지만 엄마는 늘그렇듯 단호하게 안돼 라고 말한다.

흥! 엄마마워 나는 속으로 말한다

이렇게 입밖으로 거내면 엄마에게 혼날 지도 몰라
속으로만 말했다.

이런 엄마가 천사로 변하면 좋겠다

엄마가 천사로 변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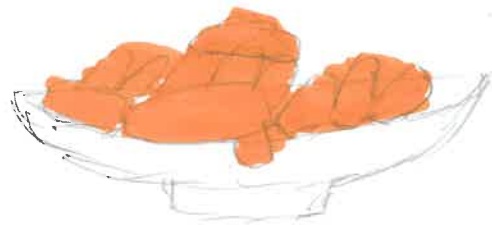
엄마가 안 사주었던 샤프, 볼펜을 사달라고 해야겠다!



매운맛
인천광역시 4학년 1반 14번
서예준

매운맛 혀가
따끔따끔거리지만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

떡볶이를
한입
두입
먹으면
매우면서 맛있는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매운맛이 느껴질 때
“앗! 매워!”

하지만 계속 먹고 싶은 건 어떡해?
죽도 되는 맛은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

나는 왜 매운맛을 좋아하나?
나는 왜 매운맛을 먹고 싶어?
나는 매운맛을 먹을 때가 행복해



밤하늘

인천용현초 4-1 15번
서윤

태백은 시골 많으 그래서

그런지 밤에 별이 또 많구나

오 별여 오 별 애기 별

작은 별 큰 별 아바 별

엄마 별까지 별이 엄청

나게 많구나 밤에 잠자

기 전에 엮으려서 창문

을 보면 보이는 별에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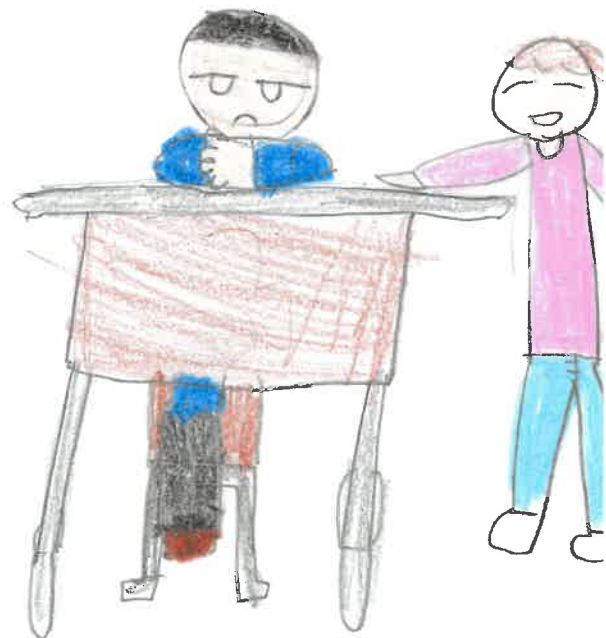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4-1번 16번

송재우

오늘은 학원을 간다. 학원을 마치고 학원을 갔다. 신난다. 알았지만 너무 조마했다. 난 선생님이 알려주는 데로 내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됐다. 근데 너무 지루했다. 몇몇 친구들은 뒤에 친구랑 떠들기도 했다. 난 빨리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고 싶었다. 하나 네가 가장 못하는 수학이니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난 나는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엄마가 "오늘 학원 어땠어?" 라고 말했다. 난 너무 재미있고 지루했다고 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친구가 생기면 재밌다고 생각해. 재밌을거야" 라고 말했다. 난 조금 더 생각했다. 진짜 친구가 생기면 재밌을까? 다음날 난 학원에 갔다. 나는 조금 더 빨리와서 앉아 있었다. 근데 어떤 애가 와서 내 옆으로 왔다. 그 짧은 시간 난 아주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애 누구지?" "나한테 왜 물어?" "내가 무슨 문제 있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그 친구가 말했다. "우리 친구할래?" 난 머릿속이 텅 비었다. "난 응서야 너 이름이 뭐냐?" "나... 나는 준이야." "우리 친구하게 지내자 하하" 난 그날 이후 학원 가는게 좋아졌다. 언젠가는 학원시간보다 1시간 더 빨리와서 그 친구를 기다렸다. 난 내 친구. 아니 응서 덕분에 학원간날게 좋아졌다. 응서야 고마워!

학원간 날



제목: 고양이 4-17 송하경

인천용현 초등학교

내가 정말로 키우고 싶었던 고양이를
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다.
나는 너무 기뻐서
이름을 방울이라고 지어 주었다

나는 학교가서도 고양이 생각하고
학원 가서도 고양이만 생각 했던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한테
달려 왔다.

귀여운 고양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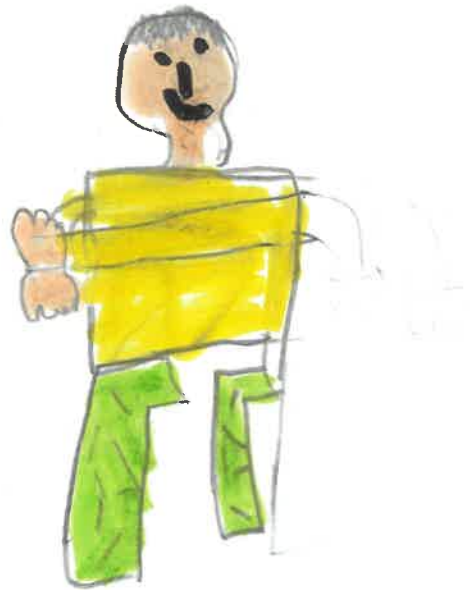
책

용원초 4-1 19번 오서준

오늘 일마가

책을 읽으라 했어요
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지루해요
머리 아파요
돈이 생김 너무 지루해요
책이 사라지라 했어요
바람도 아파요
전짜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도 능력은
좋은데 다
쓰기로
다짐해 주세요

애너지 파크



가방

인원동현호 4-1반 20번
오현아.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다.
또 학년이 끝나고 집으로 왔다.
가방은 또 저번처럼 내팽개쳐 준다.
볼 수 있는 하지만 귀찮다.
엄마는 매일 옳기라 하지만
귀찮은걸 어쩔까. 오빠도
엄마에게 호났다. 오빠는 결국엔 엄마에게
말했다. 오빠를 보고 바로 가방을 가
져다 놓았다. 엄마는 싫다. 가방을
아무데나 놓으면 안되겠다.



→가방



인천 용현초등학교

4-1반 21번

이가람

바다에 놀러 갔다 파도도 높아서
재미있었다. 엄마가 파도 맞을 때
정수 뛰면서 맞는다. 그다음 날 바다 근처에
이모 집이 있다. 거기에도 놀러 갔다
재미있는 1주일이었다



구경지

이전 9월 4일 1반 22번이전

나 $\frac{v}{L}$ $\frac{7}{L}$ $\frac{7}{L}$ $\frac{7}{L}$ 대박 양이다

Q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frac{1}{2} \times \frac{1}{2} = \frac{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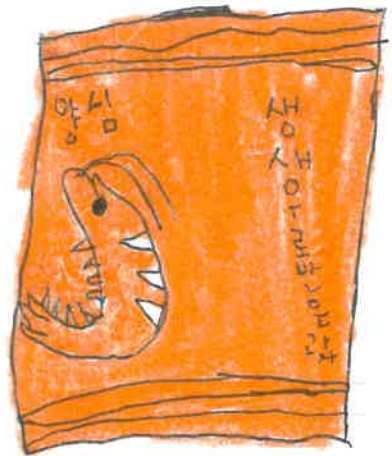
$\frac{1}{0}$ 아기만 거꾸로 엮어 가 바깥으로 다

1242 44 0122 1164

2 1 2 1 2

고려자주 7월 21일
아라가야 7월 21일

$\frac{1}{2} \times \frac{1}{2} = \frac{1}{4}$

[illegible]

401 712

$\frac{A}{0} \frac{H}{0} \frac{I}{0} \frac{J}{0} \frac{K}{0} \frac{L}{0} \frac{M}{0} \frac{N}{0} \frac{O}{0} \frac{P}{0} \frac{Q}{0} \frac{R}{0} \frac{S}{0} \frac{T}{0} \frac{U}{0} \frac{V}{0} \frac{W}{0} \frac{X}{0} \frac{Y}{0} \frac{Z}{0}$
 $\frac{A}{0} \frac{H}{0} \frac{I}{0} \frac{J}{0} \frac{K}{0} \frac{L}{0} \frac{M}{0} \frac{N}{0} \frac{O}{0} \frac{P}{0} \frac{Q}{0} \frac{R}{0} \frac{S}{0} \frac{T}{0} \frac{U}{0} \frac{V}{0} \frac{W}{0} \frac{X}{0} \frac{Y}{0} \frac{Z}{0}$

$$O \quad O \quad O \quad H \quad et$$

L + L

212

24

21 21 21

24 51 74

01 64 44 CL-

심심한 날
인천 용현로 4-1번 23번 이태윤

오늘은 주말이다.
술사람이 없는 테다가
부모님도 일을 가셨다.

심심한데 핸드폰을 하고싶은데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안받고
아빠한테 전화해도 안받는다.
친구랑 놀고 싶어도 놀 친구가 없다.

엄마 아빠가 빨리왔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서 걷고 뛰고를 반복한다.
할게 없는 나는 무대 밭에서
모래놀이 즐긴다.

엄마 아빠가 빨리오면 좋겠다.

얼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싶다.

엄마 아빠가 오면 같이 놀아야지



용현준

공습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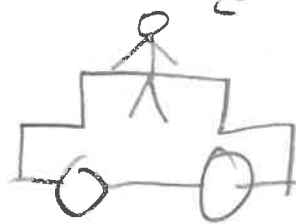
4학년 1반 24번 전훈

공습경보! 공습경보! 이밀에폭탄도있다
서울청장이딴어? 경찰력충도인! 경찰력중
동인! 도이 도이 악아악! 겨우눈물만칩니다



하기싫어

하기싫어 하기싫어 우리와 좌뇌우뇌 전투함
다있는데 왜 생각은못할까 쟁쟁-나 망해
어 난이대로 거지가 돼 겨야 난회사를
다니면 쟁쟁 망할거라구!
부자 → 거지



77

달팽이

인천옹현초 4-126번
정혜교

비가오면 보이는
달팽이가 부러울 때도 있다.
아무 걱정도 없이
목적지로 향하는 것 같아서이다.



우리는 하루동안
빨리 달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지만 달팽이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달팽이는
밟히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진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가졌을 것

같고 대체로는 우리도
달팽이처럼
느리게 해도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상에서 ★ 느낄 수 있는 행복

4-1 2학년 주머니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행복은 생각보다 많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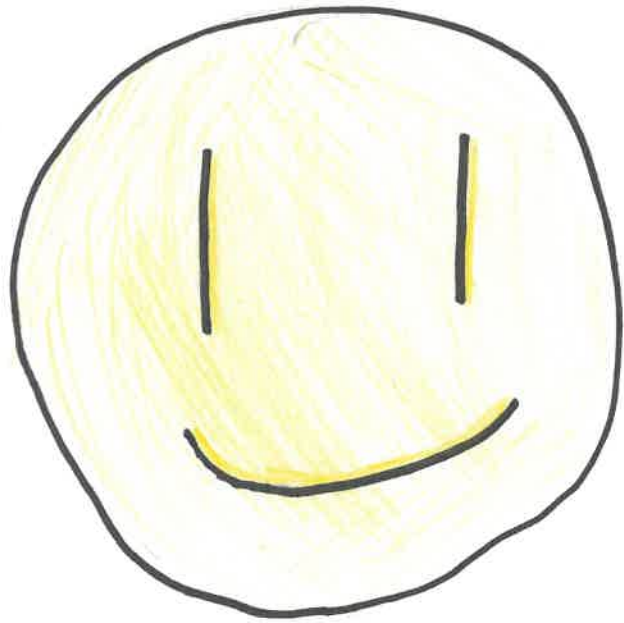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

꿈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행복이 아닐까?
우리가 큰 행복을 바라지 않고, 소
소한 일도 행복으로 느낀다면 어떨까?
그러면 매일매일이 행복할거다.

😊 HAPPY



==
여자

4학년 1반 28번 최단우

나는 혼자다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서

나는 외롭다 예전에 나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어서

나를 여쭙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이

함께할 명색 모여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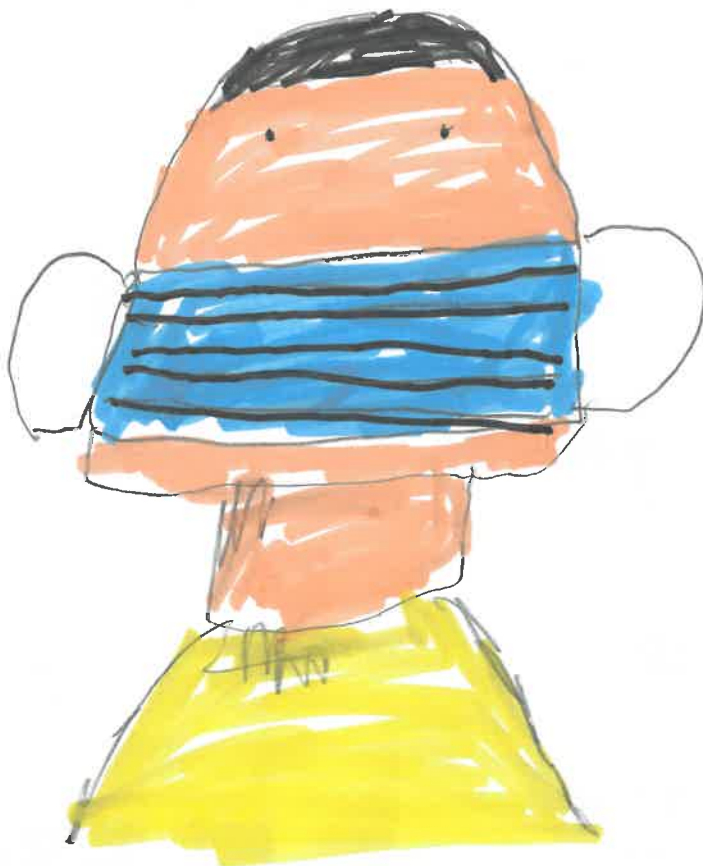
이제 외롭지 않아졌다



마스크

인천 용현 초등학교 4-1반 29번

마스크는 엄청 다 다하다 오빠면 화이팅
숨도 막히고 치질하기도 하다 그리
고 마스크를 껴버리고 쉽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
자꾸만 마스크를 쓰게 된다 마스크는
왜 쓰게 하는 건가 자꾸만 마스크
를 쓰는 것부터 익숙하다 그래도 전장을 위
해 써야만 한다 그래서 전장을 위해 마스크를
쓰게 된다.



물방울

인천 용현초 4-1 30번
서연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날
더 세게 뚝뚝 우산도 없는데
비가 내린다

친구의 우산을 함께 써도
어깨에는 빗방울이 약하게 뚝뚝



비가 약해질 때 친구는
고맙다며 나에게 우산을
건넸다

비가 점점 적게 뚝뚝
내리고 우리는 우산을
접고 극원모로 걸어갔다
며칠뒤 나의 생일
그 친구는 나에게
그날 생각이 났다며
우산을 선물로 주었고
고맙습니다.

